

‘브로커 연루 업체들’ 전남 지자체 19곳 납품

브로커 업체 7곳, 최근 5년 8개월간 계약 300여 건 체결 단체장사건 관여 대가로 이권 챙겼는지 수사 확대 방침

행사사건 브로커와 연루된 업체들이 전남 지자체 19곳으로부터 각종 사업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관급공사 수주 과정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가 단체장 사건에 관여한 대가로 이권을 챙겼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남 지자체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브로커 성모(61·구속 수감)씨의 친인척과 지인 등이 운영하는 7개 업체의 관급공사와 자재 납품 실적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전남 시군 22곳에 수사 협조 의뢰 공문을

보내 2018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브로커 성씨 관련 7개 업체의 수주·납품 실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성씨 관련 7개 업체의 업종은 목재·방안방기 납품, 건설·건축 등이다. 이 업체들은 최근 5년 8개월간 전남 지자체 22곳 중 19곳과 300여 건이 넘는 각종 계약(200억 이상 규모)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씨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승진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승용차와 17억 4200만 원을 받아 행진 혐의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검찰은 성씨가 단체장이 연루된 사건에 개입하거나 인맥을 활용,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각종 공사를 수주하거나 물품을 납품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일부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중에 올랐던 시기에 이뤄진 계약의 대가 성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가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단체장 등과 결탁한 뒤 사업을 따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와 관련 모 지자체 회계 담당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로 (성씨 관련 업체와) 계약이 이뤄져 특혜를 제공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광주 동부소방, 광주세종요양병원 소방안전교육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지난 27일 광주세종요양병원에서 의료진 및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소·소·심 소방안전교육을 운영했다.

이슬비기자



화순소방, 가을철 산불 예방 대응 대책 시행

화순소방서(서장 최형호)는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한 산불 발생 우려지역 예방순찰, 산림인접지 화목보일러 점검 등 산불 예방·대응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무안소방, 화목보일러 올바른 사용 및 관리방법 안내

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는 겨울철 난방용으로 쓰이는 산림인접지역 화목보일러 설치 가구 방문하여 화목보일러 올바른 사용 및 관리방법 등을 당부하고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순천경찰(사)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교통사고예방 업무협약

순천경찰서(서장 김남희)와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지회장 김영수)는 11월 27일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4층 대회의실에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천=김승호기자



함평경찰, 마을 지킴이(MZ) 문안 순찰 시행

함평경찰서(서장 윤창기)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정성 치안을 위해 마을 지킴이(MZ) 문안순찰을 지난 23일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함평=김광춘기자



고흥경찰, 선도심사위원회 후 위기 청소년 경제적 지원활동 전개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2023년 제4차 선도심사위원회 지원결정에 따라 지난 22일 관내 위기청소년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물품을 전달하였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단체...도민과의 대화 포기 압박

광주 군공항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무안 대책위)가 전남도와 김산 무안군수를 압박하고 나섰다.

무안 대책위는 28일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남도가 무안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을 계속 추진한다면 오는 12월 13일 무안군에서 예정된 김영록 전남지사와의 ‘도민과의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민과의 대화를 강행한다면 행사장 원천 봉쇄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또 최근 김광진 광주경제부시장이 제안한 광주 군공항 이전 협의를 위한 ‘광주시·전남도·무안군’ 3자간 대화협의체 구성 논의 중단도 촉구했다.

무안 대책위는 “전남도와 광주시가 제기한 3자 대화에 김 군수가 응한다면 주민소환까지 불사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전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일 무안군에 ‘군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3자 협의체 참여’를 요청하는 1차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24일에는 3자 협의체 회의

전남도청 앞 집회 개최 “내달 13일 무안 도민과의 대화 거부”



광주 군공항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회가 28일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공항 무안 이전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에 앞서 김산 군수와 김영록 지사와의 양자 대화도 가능하다는 2차 공문을 발송했다. 무안군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입장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거 같으면 즉각 거부 입장을 표명했겠지만 무안군도 깊은 고민을 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희망적인 회신을 기대했다.

경찰·은행원 기지로 보이스포싱 피해 면한 5·18 유가족

우리은행 지점서 한 남성 거액 인출 시도, 수상히 여긴 은행원 경찰에 신고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포싱범에 속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7000만원을 빼앗길 뻔한 5·18 유가족 가족이 은행의 신고와 경찰의 설득으로 피해를 면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해화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4시20분께 서울 종로구의 우리은행 신설동 지점에서 한 남성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 한다는 은행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38)씨는 은행 창구에서 7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

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창신파출소 소속 경찰들은 A씨에게 보이스포싱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으나, 그는 이를 믿지 않고 사업파트너에게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A씨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그를 진정시키며 보이스포싱임을 설득했다. 알고 보니 A씨는 5·18 국가 유공자의 가족으로, 인출 시도 직전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포싱범에게 “통장이 불법적으로 도용됐으니 유치장에

가기 싫으면 현금을 인출해 검찰 수사관에게 전달하라”는 전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한 범법범인으로부터 5·18 유공자 위로금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이스포싱범이 악성코드 등을 통해 이를 확인 후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경우라도 국가공무원이 현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전화가 걸려 오는 경우에는 바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대면 편취형” 이용 계좌에 대해서도 지난 17일부터 지급정지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산에서도 함께 산책해요’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안산 황토길 입구에서 열린 ‘서대문구,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 및 놀이터 개장 행사에서 반려견과 견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조건만남 미끼로 남성 나체 동영상 찍고 협박한 10대들

특수강도 및 준감금치상 등의 혐의

채팅앱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감금·폭행한 것도 모자라 나체 동영상 촬영해 협박까지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및 준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10대 A군 등 5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0월 5일 오전 6시 30분께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속여 30대 남성 B씨를 고양시의 한 원룸으로 유인, 5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또 B씨의 카드를 빼앗아 계좌이체 등을 통해 4150만원을 강취한 뒤 나체 동영상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달인 지난 16일 해당 나체동영상을 B씨에게 보내면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군 등은 “유혹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슬비기자